

# 피에르 비레의 저항권 사상 : 그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

**박경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역사신학)

- I. 서론
- II. 피에르 비레의 생애
- III. 비레의 저항권 사상
- IV. 결론

**[초록]**

본 연구는 16세기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지만 우리에게 낯선 개혁자인 피에르 비레의 저항권 사상에 관한 탐구이다. 종교개혁 연구에서 소외된 인물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는 것은 종교개혁 역사의 실체를 온전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보여주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자 의무이다.

비레는 기욤 파렐, 존 칼빈과 함께 ‘제네바 종교개혁 삼총사’라 불리는 로잔의 종교개혁자이다. 본 연구는 먼저 비레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생애를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한 다음, 특별히 비레의 저항권 사상이 드러난 작품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정치사상을 조명할 것이다.

비레는 16세기 종교개혁자 가운데 온건한 평화주의자로 평가받지만, 1536년 로잔의 개혁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여 1559년 강제 추방당하기까지 당시 로잔을 통치하고 있던 베른 당국의 행정관들과 끊임없이 갈등하였다.

필자에게는 비레의 저항권 사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구체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1536년 로잔 논쟁에서 보여준 그의 초기 입장은 다분히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에 강조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교회의 자율성을 놓고 베른의 통치자와 논쟁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더욱 심사숙고하게 되었다. 비레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세 차례의 프랑스 종교전쟁에 연관되고 투옥까지 당하면서 그의 저항권 사상은 더 뚜렷해졌다.

**키워드:** 피에르 비레, 저항권, 종교개혁, 교회와 국가, 로잔, 베른

논문투고일 2023.01.10. / 심사완료일 2023.02.27. / 게재확정일 2023.03.02.

## 1. 서론

우리는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곧장 루터, 츠빙글리, 칼빈 같은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나 실상 종교개혁은 한 위대한 영웅이 만든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종교개혁은 수많은 개혁자의 동역과 헌신이 모이고 합쳐져 만들어진 역사의 변혁이었다. 그러나 대중은 영웅을 원하고 기록은 그에게만 집중하여 조명한다. 대중의 관심에서 소외된 많은 남성 그리고 여성 개혁자는 비주류로 밀려나고 서서히 잊힌다. 마치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영웅 몇 사람이 만든 극적인 드라마인 양 왜곡된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진실이 아니다. 소외된 개혁자들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는 것은 종교개혁 역사의 실체를 온전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보여주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자 의무이다. 본 논문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피에르 비레(Pierre Viret, 1511-71)는 흔히 ‘종교개혁의 천사’ 그리고 ‘로잔의 종교개혁자’라 불리는 인물이다. 비레는 기욤 파렐, 존 칼빈과 함께 ‘제네바 종교개혁의 삼총사’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레는 칼빈의 동료 정도로만 치부될 뿐, 독자적인 개혁자로서의 그의 사상과 삶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잊힌 종교개혁자 정도는 아닐지라도 낮은 종교개혁자인 것은 분명하다. 비레의 조국인 스위스나 그가 활동했던 프랑스에서는 그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sup>1</sup>

따라서 필자는 먼저 비레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생애를 소개할 것이다. 국내에 비레에 관한 소개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너무 길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비레와 연관된 지역을 따라가면서 저항권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생애를 조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 비레의 저항권 사상이 드러난 작품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정치사상을 조명할 것이다. 비레는 1536년 로잔의 개혁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여 1559년 강제 추방당하기까지 당시 로잔을 통치하고 있던 베른 당국의 행정관들과 끊임없이 갈등하였다. 따라서 비레는 교회와

\* 이 논문은 2023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1 기본적인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각주와 참고문헌을 참고하라.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는 혹은 그리스도인은 국가 권력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였다. 필자가 비레의 저항권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가 개혁자들 사이에서 저항권을 둘러싸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교회와 국가 혹은 목회자와 행정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 II. 피에르 비레의 생애<sup>2</sup>

### 1. 오르브-파리-오르브

비레는 1511년 스위스 로잔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오르브(Orbe)에서 출생하였다. 흔히 제네바 종교개혁 삼총사라 불리는 파렐, 칼빈, 비레 가운데 비레만 스위스 출신이다. 16세기 프랑스어를 사용한 종교개혁자 가운데 ‘스위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대표적 개혁자가 비레이다. 재단사 기욤 비레의 세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난 비레는 일찍부터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였다. 작은 마을 오르브의 학교 선생이었던 마르크 로맹(Marc Romain)이 루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오르브에는 고등교육 기관이 없었기에 1527년 16살의 비레는 파리의 콜레주 드 몽테규로 유학을 떠났다. 몽테규는 14세기 초에 세워진 유서 깊은 학교로 에라스무스와 칼빈이 공부했던 곳이기도 하다. 1527년 말은 칼빈이 몽테규를 떠났고, 로올라의 이냐시오가 새롭게 입학한 때였다. 따라서 이 시기

2 R. A. Sheats, *Pierre Viret: the Angel of the Reformation* (Zurich Publishing, Tallahassee, FL, 2012)은 영어로 나온 비레의 전기로 매우 유용하다. 필자도 이 전기를 주로 참조하였다. 각주에는 인용문 원출처와 함께 이 책의 재인용 쪽을 함께 표기한다. 재발리 비레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Machiel A. Van den Berg, “Pierre Viret: The ‘Best Friend of All’,” *Friends of Calvin*, trans. Reinder Bruinsma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89-98; Robert D. Linder, “Forgotten Reformer,” *Christian History* 71 (Aug. 2001), 35-37이 도움이 된다.

비레가 칼빈을 만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나시오와는 만났을 것이다. 파리에서 배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는 비레가 성서에 뿌리내린 개혁자가 되게 했고, 이때 배운 프로테스탄트 신학 사상은 비레를 새로운 소명자로 변화시켰다. 비레는 몽테뉴에서 겪은 자기 경험과 변화에 대해 “그때 주님이 세우신 위대한 사람들, 나는 그들의 책을 들고 다니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들의 제자가 되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된 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sup>3</sup>라고 회고하였다. 또한 비레는 “학교에 다니던 젊은 시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바벨론의 오류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오류의 미궁에서 건져주셨다.”<sup>4</sup>고 고백한다.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분명 로마가톨릭교회를 의미할 것이다.

비레는 1530년 파리를 떠나 고향 오르브로 돌아왔다. 이 시기 오르브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베른이 1528년 2월 7일 공식적으로 츠빙글리주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면서 프로테스탄트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오르브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도시 프리부르는 여전히 로마가톨릭 도시였다. 당시 오르브는 베른과 프리부르의 공동지배 아래 있었다. 옛 종교와 새로운 종교개혁 사이에서 혼란은 불가피했다. 당시 오르브에서는 파렐이 프로테스탄트 복음을 설파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개신교파와 가톨릭파로 나뉘어 갈등이 일어났다. 파렐은 비레에게 고향에서 복음 설교자로 활동해 줄 것을 강권하였다. 비레는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벼락’같은 파렐의 위협과 강권에 못 이겨 결국 1531년 5월 6일 첫 번째 공적 설교를 함으로써 20살 약관의 나이에 오르브의 설교자가 되었다. 마치 1536년 칼빈이 파렐의 강권으로 제네바의 개혁자가 된 것처럼 말이다.

## 2. 그랑송-파예르-뇌샤텔-제네바

비레는 복음 설교가로서의 재능을 타고났다. 그의 설교는 고향 오르브의 주민들을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회심시켰다. 그중에서 비레를 특히 고무시킨 것은 로마가톨릭 교인이었던 부모가 아들의 설교를 듣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sup>3</sup> Henri Vuilleumier, *Notre Pierre Viret* (Librairie Payot & Cie, Lausanne, 1911), 13. Sheats, 6.

<sup>4</sup> Henri Vuilleumier, *Notre Pierre Viret*, 15. Sheats, 6.

돌아선 일이었다. 비레는 이때의 감격을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다.”<sup>5</sup> 그는 고향 오르브를 종교개혁 도시로 바꾸어놓았다. 그리고 주변 도시들, 그랑송과 파예른과 뇌샤텔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와중에 1533년 12월 어느 날 파예른에서 로마가톨릭 광신자에 의해 칼에 찔려 중상을 당하기도 했다.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그는 평생 흉터를 갖게 되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갈 6:17)을 지니게 된 것이다.

1534년 비레는 베른 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네바로 가서 파렐과 합류하여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다. 비레와 파렐은 제네바에서 로마가톨릭과 공개 논쟁을 펼치며 프로테스탄트 복음을 설파하였다. 그러던 중 1535년 3월 6일에는 파렐, 프로망, 비레 세 사람이 식사할 때, 위그노 피난민으로 신분을 속인 로마가톨릭 교도 앙토니아 박스(Antonia Vax)가 시금치 수프에 독을 풀어 개혁자들을 살해하려고 했다. 파렐과 프로망은 수프를 먹지 않아 화를 면했지만, 비레는 중독되어 쓰러졌다. 이 소식을 들은 제네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설교자를 잃게 될 것이라며 애통해했다. “교회가 이런 진주 같은 사람을 잃어야만 합니까? … 가엾은 비레! 가련한 개혁자들! … 뒤에는 칼, 앞에는 독이구나 …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이런 것이란 말인가!”<sup>6</sup>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비레는 회복하여 목숨을 건졌지만, 이로 인해 그는 평생 소화 계통의 고질적 문제로 시달리게 되었다. 16세기 로마가톨릭 세상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가 된다는 것은 칼과 독에 의해 언제든지 살해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제네바가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1536년 5월 21일을 두 달쯤 앞둔 3월 6일 비레는 로잔의 목회자가 되어 떠났다. 이제 비레의 공백은 새로 제네바에 오게 될 칼빈이 메우게 된다.

5 Merle D'Aubigné,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Europe*, Vol. II, Book V (Harrisonburg, VA: Sprinkle Publications, 2000), 224. Sheats, 14.

6 Merle D'Aubigné,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Europe*, Vol. III, Book IX, 248. Sheats, 6.

### 3. 로잔-제네바-로잔

비레의 지도력으로 로잔을 중심으로 하는 보(Vaud) 지역은 점차 종교개혁의 중심지 중 하나로 변해갔다. 로잔의 대성당에서 1536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로잔 논쟁’에서 비레와 파렐은 로마가톨릭 신앙에 맞서 개혁 신앙을 옹호하였다. 이때 제네바에 막 정착한 칼빈도 로잔 논쟁에 참여하였다. 논쟁이 끝난 며칠 뒤 10월 19일 로잔 의회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도시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에르 카롤리와 피에르 비레가 로잔 개혁교회의 대표 목회자로 선임되었다. 하지만 카롤리는 동료 개혁자들과의 불화로 이듬해 6월 추방되었고, 로잔과 보 지역은 비레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 특히 비레 종교개혁의 요람인 로잔아카데미가 프로테스탄트 지도자 양성을 위해 1537년 1월 초에 설립되었다. 그 후 비레는 1558년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잔아카데미의 책임자요 교사로 가르쳤다. 1538년 10월 6일 비레는 파렐의 주례로 고향 오르브 출신인 엘리자베스(Elizabeth Turtaz)와 결혼하였다.

제네바에서 토착 세력과의 갈등으로 1538년 4월 23일 파렐과 칼빈이 추방당한 후, 비레는 추방당한 개혁자들과 제네바 의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비레는 의회가 칼빈을 다시 청빙하도록 촉구하였고, 칼빈의 제네바 귀환을 도왔다. 또한 제네바를 떠나 뇌샤텔로 간 파렐이 뇌샤텔 의회와 갈등을 빚자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화해자로서의 비레의 역할과 활동이 돋보인 시기였다. 칼빈은 1541년 제네바로 귀환한 후에도 비레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베른 영주들에게 비레가 좀 더 제네바에 머물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레는 1542년 7월 18개월의 제네바 체류를 끝내고 다시 로잔으로 돌아갔다. 파렐, 비레, 칼빈의 우정은 특별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함께 대처했다. 예를 들어 1543년 피에르 카롤리가 파렐을 이단으로 정죄하자, 비레와 칼빈은 파렐을 옹호하기 위해 함께 문서를 출판하였고 기꺼이 달려가 그를 도왔다. 비레는 칼빈을 돕기 위해 제네바로, 파렐을 돕기 위해 뇌샤텔로 종종 향했다. 비레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결혼 8년 만인 1546년 3월 세상을 떠나자 시름에 잠긴 그를 위해 칼빈이 중매에 나섰다. 그해 11월 비레는 세바스티

엔 아르프(Sebastienne de la Harpe)와 재혼하였다. 1548년 비레의 아내가 출산할 때는 칼빈의 아내 이데레트가 로잔으로 달려와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1549년 이데레트도 칼빈을 홀로 남겨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비록 비레가 갈등으로 점철된 종교개혁 시기 평화의 중재자로 널리 인정받기는 했지만, 그의 삶은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비레는 로잔을 포함한 보 지역에 대한 엄격한 정치적 지배권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베른 당국과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살았다. 베른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도시이긴 했지만, 세속 행정관이 교회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체제를 원했다. 목회자 임면권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 체제를 비롯한 영적인 문제에서도 시 당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기를 원했다. 비레는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베른 당국과 계속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교회 치리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심했다.

1549년 베른은 비레를 비롯한 보 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는 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1550년과 1551년 비레는 교회개혁을 요구하는 안을 작성하여 로잔의 60인 의회와 200인 의회에 제출했지만 어떤 회신도 듣지 못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558년 베른 당국이 예정론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토농(Thonon)의 목회자 네 명을 일방적으로 해임하자, 비레는 로잔과 베른 의회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비레가 계속해서 교회 치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베른 행정관들은 당국에 복종하든지 추방당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통보하였다.

결국 1559년 1월 로잔에서 추방당한 비레를 포함한 로잔의 목사들과 교수들은 제네바로 향했다. 이것이 1559년 제네바아카데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칼빈이 제네바아카데미의 개원을 앞두고 가장 고민했던 교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 것이다. 1549년부터 로잔아카데미에서 가르쳤던 테오도르 베즈가 제네바아카데미의 초대 학장을 맡게 되었고, 칼빈 사후 제네바 목사회의 대표로 칼빈을 이어 제네바 종교개혁을 이끌게 된다. 제네바는 비레를 환영하고 사랑했다. 제네바는 비레를 목회자로 선임했고, 칼빈의 집보다 크고 편안한 집과 높은 임금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1559년 12월 칼빈과 비레에게 제네바



시민권이 주어졌다.

#### 4. 님-몽펠리에-리옹-베아른

제네바는 비레를 환대했고 그에게 중요한 역할도 부여했지만, 비레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무엇보다 이미 제네바는 칼빈의 지도력 아래 녹스가 “사도 시대 이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sup>7</sup>라고 부를 정도로 프로테스탄트 복음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프랑스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가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으며 목회자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소식이 그가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이끌었다. 1561년 비레는 제네바 의회와 목사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남부 프랑스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비레는 님, 몽펠리에, 리옹 같은 프랑스 남부 도시에서 건강을 회복하면서 개혁운동을 계속 펼쳤다. 1563년 8월 10일에는 리옹에서 열린 제4차 프랑סק개혁신교회 총회의 의장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1564년 5월 27일 칼빈이, 1565년 9월 13일 파렐이 자기 소명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 1566년 비레는 나바라의 여왕 잔 달브레의 초청으로 베아른 지역으로 갔다. 비레는 베아른 교회법령과 시편찬송가를 펴내고, 오르테즈아카데미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가면서 나바라 왕국을 프로테스탄트 영토로 바꾸는 일에 잔과 함께 헌신하였다. 비레는 자신의 마지막 때 나바라에 머물면서 프랑스 종교개혁을 위해 애쓰다가 1571년 라 로셀 총회 참석을 준비하던 중 오르테즈 인근에서 숨을 거두었다. 잔 달브레는 제네바 의회에 편지하면서, “지난 종교전쟁 동안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입은 가장 큰 손실은 비레 선생님을 잃은 일입니다.”<sup>8</sup>라고 썼다.

테오도르 베즈는 자기 선배요 동료였던 파렐, 칼빈, 비레에 대해 이렇게 평한 바 있다. 베즈는 파렐에 대해 “이 사람보다 힘 있게 천둥소리를 발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칼빈에 대해 “이 사람보다 더 큰 권위로 가르친 사람은 없다.”라고,

7 John Knox, *Works of John Knox*, vol. 4, ed. David Laing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14[1855]), 240. Mrs. Locke에게 보낸 녹스의 편지에 나오는 문구이다.

8 R. A. Sheats, *Pierre Viret*, 209.

비레에 대해서는 “이 사람보다 더 감미롭고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하였다.<sup>9</sup> 칼빈이 신학자요, 파렐이 실천가라면, 비레는 설교자였다. 베즈를 비롯한 동시대인 중 많은 사람이 비레를 칼빈보다 탁월한 설교자로 꼽았다. 비레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자 했다. 당대 최고의 설교자, 갈등의 시대 탁월한 중재자, 스위스와 프랑스와 나바라의 종교개혁자, 낯설지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피에르 비레이다.

### III. 비레의 저항권 사상

비레가 우리에게 낯선 개혁자이기에 비교적 그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본 논문의 주된 관심 주제인 비레의 저항권 사상을 그의 글을 통해 추적해보자. 이 주제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설정 혹은 목사와 군주의 역할, 더 넓게는 프로테스탄트의 혁명적 전통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 1. 로잔 논쟁(1536)

비레의 국가관과 저항권 사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536년 로잔 논쟁에서였다. 비레는 1536년 3월 6일 로잔의 목사로 임명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로잔 대성당에서 개혁진영과 로마가톨릭 진영 사이에 신학 논쟁이 벌어졌다. 지금도 대성당 안에는 이때의 논쟁을 보여주는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이 있다.

당시 로잔은 사부아 공국의 지배를 막 벗어나 정치적으로 베른의 통치를 받는 상태였다. 베른은 일찍이 1528년 베른 논쟁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도시로 돌아섰다. 만일 베른 행정관의 주도로 로잔에서 양측의 토론회가 벌어진다면,

<sup>9</sup> Henri Vuilleumier, *Notre Pierre Viret*, 142. Jean-Marc Berthoud, “Pierre Viret and the Church’s Refusal to Fold before the Power of the State,” *Pierre Viret The Theologian*, trans. R.A. Sheats (Monticell, FL: Psalm 78 Ministries, 2019), 25-26에서 재인용.

로잔마저 프로테스탄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조만간 전체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지역 도시의 토론회를 유보하라고 명령했지만, 베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로잔 논쟁을 강행하였다. 카를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개혁자들과 로마가톨릭 신학자들은 로잔에 모여 열 가지 주요한 논점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sup>10</sup> 그중 여덟 번째 쟁점이 시민 행정관의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개혁자들이 밝힌 여덟 번째 결정은 “행정관은 오로지 하나님에 임명하며,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시며 명하신다.”<sup>11</sup>는 것이다. 당시 25살의 비레는 시민 행정관의 필요성과 그 역할과 권위에 관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는 임무를 떠맡았다. 비레가 작성한 문서의 쪽마다 수많은 성서 구절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그는 철저하게 성서에 근거한 국가관을 주장한다.

개혁자들은 로잔 논쟁의 다섯 번째 결정에서 교회 목회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리고 여덟 번째 결정에서는 국가 행정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비레는 교회의 통치와 국가의 통치가 모든 공동체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한

10 로잔 논쟁에서 파렐이 작성한 10가지 주요한 논점이 논의되었다. ‘10개의 결정’(ten conclusions)이라 불리는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성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단번에 이루신 칭의 이외의 다른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 2.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요, 제사장이요, 증보자요, 그의 교회의 중재자이다. 3.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받고 구속받는다고 믿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4.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교회는 세례와 성찬으로 구별되는 외적 예전을 받았다. 5.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을 집행하는 사람만을 목사로 인정한다. 6.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용서를 얻기 위한 죄의 고백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죄 외의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7. 교회는 영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명한 예배의 방식 이외의 어떤 예배도 거부한다. 8. 교회는 하나님에 시민 행정관을 임명하시며 행정관은 나라의 평화를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9. 교회는 결혼이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며,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의 거룩함에도 반대되지 않는다. 10. 비본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육식, 음주, 특정 날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서, 믿는 자는 모든 일에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신중함과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R. A. Sheats, *Pierre Viret*, 44. 1536년 로잔 논쟁 본문은 *Les Actes de la Dispute de Lausanne 1536* (Secretariat de l'Universite: Neuchatel, 1928), 298-304에 있다.

11 Pierre Viret, *The Christian and the Magistrate: Roles, Responsibilities, and Jurisdictions*, trans. and ed. R. A. Sheats (Monticello, FL: Psalm78Ministries, 2015), 59.

다.

이 두 가지 통치는 꼭 필요하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을 겸비하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직분 없이는 인간 공동체, 일치,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일치와 평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양한 봉사자들을 세우셔서, 어떤 사람은 영혼을 섬기고 영적인 일을 돌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육체와 현세적 재물과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게 하신다.(고전 14:33)<sup>12</sup>

목사와 행정관은 모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임명한 사역자요 일꾼이다. 물론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목사가 영혼의 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돌본다면, 행정관은 쇠로 만든 칼로 의인을 보호하고 악인을 벌한다. 행정관 역시 하나님이 임명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출 22:28) 비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성서에서 행정관들을 ‘신들’(gods)이라 부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시 82:1,6)<sup>13</sup>

비레는 모든 백성은 행정관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비레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베른 당국자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행정관들이 선하고 신실하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고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불성실하고 가혹한 폭군이라면, 그럴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서는 우리에게 그런 행정관을 보내어 성도의 인내를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허하게 하시며 질책하시기 때문이다.<sup>14</sup>(강조점은 필자의 것)

비레는 성서의 예를 들어 자신의 논지를 강화한다. 비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12 Pierre Viret, *The Christian and the Magistrate*, 60.

13 Pierre Viret, *The Christian and the Magistrate*, 60.

14 Pierre Viret, *The Christian and the Magistrate*, 61.

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그에게 복종하라고 촉구하였다. 예수께서도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거나 뒤엎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 22:21)에게 주라고 명하셨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와 너를 위하여’(마 17:27) 세금으로 드라크마를 바치라고 하시면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sup>15</sup>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며, 다만 행정관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sup>16</sup>

비레에게서 아직은 행정관에게 불복종할 수 있는 저항권 사상이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얼핏 그 실마리가 보이기는 한다. 앞의 인용문에서 필자의 강조점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만일 행정관들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레의 말을 좀 더 들어보자.

그러나 만일 그의 폭정이 육체와 재물의 범위를 넘어서고, 우리로 우상숭배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강요한다면,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를 미워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최상의 통치자이며, 인간은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보다 육체와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이다.(행 5:29)<sup>17</sup>

이렇게 행정관에 대한 불복종의 가능성을 말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적극적 저항의 표현은 아니다. 비레는 폭력과 혁명으로 위의 권세를 뒤엎기보다,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고난을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여덟 번째 결정의 마지막

15 Pierre Viret, *The Christian and the Magistrate*, 62-63.

16 Pierre Viret, *The Christian and the Magistrate*, 63-64.

17 Pierre Viret, *The Christian and the Magistrate*, 65.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교회는 근심과 다툼과 혼란의 근원이 되는 영에서 나오는 이처럼 선동적이고 패역한 영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를 가장하여 칼의 권세를 뒤엎고 찬탈하는 자들을 정죄한다. 이들은 세속적이며 영적 권한 모두를 자기들에게 속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합법적이고 천부적인 통치자들에게 큰 잘못을 범하고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과 나눌 몫이 없음을 잘 보여준다.<sup>18</sup>

행정관의 권위와 합법성에 대한 비레의 논증은 사려 깊고, 간명하며, 분명하다. 하지만 저항권에 대해서는 맹아만 보일 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은 1547년 비레의 저술에 나타난다.

## 2. 『교황주의자들 사이에서 대화하는 신자들에 대한 충고』(1547)<sup>19</sup>

비레가 1536년 로잔 논쟁에서 보여준 행정관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무에 관한 신념은 그의 모든 저술을 관통하는 기본적 원칙이다. 그러나 로잔 논쟁 이후 11년이 지난 1547년 나온 그의 책은 잘못된 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훨씬 풍부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마도 비레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베른의 행정관과 로잔 의회와 부딪히면서 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 민족이 고유한 법률, 자유, 지도자를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군주가 그들에게 부과한 요구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폭군이 나타나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맹세한 자들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직무가 요구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보호해야 할 자들을 고의적으로 압제한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합법적인 하급 행정관을 통해 그러한

18 Pierre Viret, *The Christian and the Magistrate*, 68.

19 Pierre Viret, *Remonstrances aux Fidèles qui conversent entre les Papistes* (Geneva, 1547).

폭군의 폭정에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단으로 노예 상태를 면할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의 권고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전 7:21)<sup>20</sup>(강조점은 필자의 것)

비레는 통치자의 필요성과 권위를 충분히 확인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폭정을 일삼는다면 그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물론 개인적으로 군주에게 저항하는 것은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백성의 뜻에 따라 세워진 하급 행정관들은 백성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폭군의 전제적 시도에 대해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일을 앞장서서 이끌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하나님께서 행정관에게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에, 백성은 폭군의 분노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만일 통치자가 폭군으로 바뀌고, 그가 마땅하고 정당한 보수에 만족하지 않고 폭정, 무력, 폭력으로 복음, 종교, 자유를 파괴하려 한다면, 그가 자녀처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마치 투르크인처럼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들[하급 행정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폭군에 대항해서 백성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 행정관들은 폭군과 폭력에 대항해서 그들의 책임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과 나라를 지키는 일에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일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역자이며, 하나님과 나라와 백성에게 불충한 자들이다.<sup>21</sup>

이러한 비레의 생각은 동료인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과 비슷하다.<sup>22</sup> 칼빈도 『기독교강요』에서 “만일 왕들의 횡포를 억제하라고 임명된 백성의 행정관들(magistratus populares)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의무에 따라서 왕들의

20 Pierre Viret, *Remonstrances aux Fidèles*, 336-37.

21 Pierre Viret, *Remonstrances aux Fidèles*, 337.

22 박경수, “칼뱅의 국가론,”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13-39를 참조하라.

맹렬한 방종에 저항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sup>23</sup>고 밝힌다. 백성의 행정관들에게는 백성들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왕의 폭정과 방종을 방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에 대한 유기이며 백성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칼빈은 이런 ‘백성의 행정관들’의 예로서 고대 스파르타의 감독관들, 로마의 호민관들, 아테네의 장관들을 언급하고 있다. 어쩌면 칼빈은 자기 조국 프랑스의 삼부회도 염두에 두었을지 모른다. 이들이 왕의 전제적 통치를 견제하고 막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칼빈은 왕정보다는 다수가 다스리는 대의적 정치 제도에 호감을 가졌을 것이다.

비레의 정치사상을 연구한 로버트 린더는 비레가 이런 견해를 표명한 것이 1547년 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sup>24</sup> 이것은 베즈의 저항권이 표현된 책 『행정관의 권리』보다 7년 앞선 것이고, 프랑스 종교전쟁 발발보다 15년, 성 바르톨로뮤 학살 사건보다 25년이나 앞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저항권 전통에서 비레가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저항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비레가 이 책을 썼을 때 그가 로잔의 목사였으며, 구체적으로 로마가톨릭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고 있는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글은 참된 신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룬 목회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 3. 비레와 베른 권력자들과의 갈등(1558-59)

<sup>23</sup>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20, 31. 맥닐의 평가에 따르면, 칼빈의 이 선언은 “여러 세대를 거쳐 개혁교회 정치적 저술의 문구가 되었다. 88개의 라틴어 단어로 이루어진 칼빈의 이 한 문장이 그가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한 진술보다 더 인상적이고, 아마도 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John T. McNeill, “John Calvin on Civil Government,” *Calvinism and the Political Order*, ed. George L. Hu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40.

<sup>24</sup> Robert D. Linder, “Pierre Viret and the Sixteenth-Century French Protestant Revolutionary Tradition,”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38/2 (June 1966), 134.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1546-1547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로 대표되는 로마가톨릭 세력과 슈말칼덴 동맹을 중심으로 한 루터파 세력 사이에 벌어진 슈말칼덴 전쟁도 비레의 저항권 사상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



비레의 저항권은 무엇보다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게 된 베른 권력자들과의 갈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비레는 1536년 3월 로잔의 목사가 된 후 베른 당국과의 갈등으로 1559년 1월 해임당하고 추방되기까지 23년을 로잔의 목회자요 개혁자로 사역하였다. 비레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한 후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41년 1월부터 1542년 7월까지 18개월 동안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다. 제네바 체류 기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비레는 적어도 20년 이상 로잔의 목회자요 설교자로 일하였다.

그런데 왜 비레가 로잔에서 추방되었을까? 그것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해묵은 갈등 때문이었다. 비레를 비롯한 로잔의 목회자들은 로잔 의회와 실질적 권력을 가진 베른 당국에 끊임없이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요구했다. 특히 교회가 예배, 교리, 도덕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파문할 수 있는 치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츠빙글리식 개혁을 채택한 베른은 국가의 공권력이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였고, 따라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개혁교회 역사학자 제임스 굿이 지적한 것처럼,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츠빙글리식 국가 우월주의 견해가 베른에서만큼 충분히 발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베른에서는 교회와 국가가 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단지 국가의 팔에 불과했다. 종교개혁에서 주교들의 통치를 끊어낸 대신, 국가가 주교의 자리를 차지했고 그 권위로 통치했다.”<sup>25</sup>

비레는 로마가톨릭의 무제한적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그와 유사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베른 통치자들에게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들은 설교자들이 사제와 수도승의 죄에 대해 소리 높일 때는 듣기 좋아하지만, 자신들의 죄에 대해 소리 높일 때는 듣기 원치 않는다. 그들은 회개 없는 복음, 삶의 변화 없는 복음을 듣기 원한다. 그들은 복음의 이름으로

<sup>25</sup> James I. Good, *History of the Swiss Reformed Church since the Reformation* (Sunday School Board, Philadelphia, 1913), 41.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무제한의 허가증 같은 자유를 원한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어던지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sup>26</sup>

비레는 평화를 사랑했지만 베른의 권력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교회와 국가 관계에서 교회의 영적 자율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참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공권력으로부터 해방되고, 성직자의 권위가 인정되고, 복음에 따른 치리가 행해지고, 신앙과 삶으로 영광스러운 구주를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 한, 교회는 개혁되지 않을 것이다.”<sup>27</sup> 교회의 독립성은 소극적으로는 정치 권력자의 교회 내적 문제에 대한 간섭을 거부함으로써, 적극적으로는 컨시스토리의 치리권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사법권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했다.

비레에 따르면,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정관의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반면에 “어떤 통치자도 종교와 하나님 예배에 관한 법을 반포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 주제넘은 통치자가 건방지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마귀에게 복종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통치자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sup>28</sup> 그런데 베른 당국은 교회가 가진 자유를 제한했고, 베른이 제시한 교회개혁 법령에 목회자들이 찬성할 것을 강요했다. 베른의 강압적 태도는 비레를 비롯한 목회자들과의 충돌을 초래했다.

1558년 2월 베른은 토농의 목사 네 명을 분란을 조장하는 예정론에 대해 설교했다는 이유로 해임하였다. 비레와 목회자들은 치리는 교회에 속한 권한이라 주장하면서 로잔 의회에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베른까지 찾아가서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히려 베른은 1559년 7월 예정론에 관한 설교를 금하는 법령을 반포하고 지역의 모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것을 읽도록 명령하

<sup>26</sup> Henri Vuilleumier, *Notre Pierre Viret*, 143. Jean-Marc Berthoud, “Pierre Viret and the Church’s Refusal to Fold before the Power of the State,” 18에서 재인용.

<sup>27</sup> Roger Barilier, *Viret banni* (Cahiers de la Renaissance vaudoise, Lausanne, 1970), 177. Jean-Marc Berthoud, 19.

<sup>28</sup> Jean Barnaud, *Pierre Viret, Sa Vie et Son Oeuvre* (Wentworth Press, 2016[1973]), 528. Jean-Marc Berthoud, 20-21.

였다. 12명의 로잔 목회자가 항의 서신을 베른에 보내자, 베른은 그들을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으로 답했다. 로잔아카데미 교수였던 베즈는 만일 베른이 판결을 철회하지 않으면 교수직을 사임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베른은 즉각 그의 사임을 받아들였다. 양측 모두 양보할 의사는 전혀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비레는 1558년 11월 29일 베른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만일 베른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성탄절 성찬식을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베즈와 마찬가지로 로잔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비레는 12월 3일 칼빈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른 사람들이 정한 조건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망명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sup>29</sup>라고 썼다.

비레와 로잔의 목회자들은 성탄절 성찬을 한 주간 연기하기까지 하면서 저항했다. 그러나 베른은 이듬해인 1559년 1월 20일 대표단을 로잔으로 파견해 주동자인 피에르 비레, 자크 발리에(Jacques Valier), 아르망 방크(Armand Banc)를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로잔 노회(로잔에서 브베에 이르는 지역에 있는 목사와 집사의 모임)가 이 명령을 거부하자 베른은 노회원을 모두 감금되었다. 비레와 발리에의 후임으로 브베의 오귀스탱(Augustin Marlorat)과 앙투안(Antoine le Chevalier)이 임명되었지만 그들이 거부하였다. 그러자 베른 당국은 파예른의 목사 리샤르(Richard Dubois)와 토농의 목사 장(Jean de Bosc)을 임명했고, 두 사람은 이를 받아들였다.<sup>30</sup>

비레는 1531년 20살 때부터 오르브와 로잔을 비롯한 보 지역의 개혁자로 28년을 사역하다가 1559년 2월 말 칼빈과 베즈가 있는 제네바로 향했다. 비레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겠는가?”<sup>31</sup>라고 고백했다.

29 Edouard Cunitz, et. al., *Calvini Opera*, XVII (Brunsvigae: C.A. Schwetschke, 1863), 2990. 라틴어로 된 59권 『칼뱅전집』의 전문을 제네바대학 아카이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https://archive-ouverte.unige.ch/unige:650>)

30 피에르 비레 홈페이지(<http://pierre-viret.org/article.php>)에 실려 있는 Charles Schnetzler, “Pierre Viret and the Ecclesiastical Conflict with Bern in the Mid-16th Century” 논문을 참조하라.

31 Pierre Viret, *De vrai ministère de la vraie église de Jésus-Christ* (Geneva, 1560).

이 고백은 지금도 로잔 대성당 옆 ‘피에르 비레 거리’에 그를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에 새겨져 있다.

#### 4. 『제국의 세계와 악마의 세계』(1561)<sup>32</sup>

비레는 행정관들이 목회자의 고유한 임무인 복음 설교와 치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교회의 고유한 영역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것이며, 목회자의 역할까지 강탈하는 행위이다. 중세 시대 교황이 세속 권력의 권위를 침범하여 절대 권력을 추구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역으로 정치 권력자가 목회자의 권위를 찬탈하는 행위 또한 그릇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두 개의 칼, 즉 영적 칼과 세속적 칼을 뒤섞어 혼란케 하는 것이다.

그들[개혁파 행정관들]은 자신들이 교황과 주교를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 그들은 교황주의자들이 세속적인 칼과 영적인 칼의 권한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별로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황의 파당이 행정관이 가진 세속적 칼을 훔쳤다고 불평하면서도,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목회자들의 영적인 칼을 훔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3</sup>

베른 당국의 강압으로 로잔의 목회직에서 추방당한 경험을 통해, 비레는 종교 개혁의 변형(deformation)을 목격했다. 교황의 지배가 군주의 지배로 바뀌었을 뿐, 복음의 원칙과 교회의 독립성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레가 “차이점은 이것이다. 교황이 긴 가운을 입는다면, 그들은 대신 짧은 가운을 입고 교황을 대신하려고 한다.”<sup>34</sup>라고 썼을 때, 그는 자신을 로잔의 목사직에서 해임한 권력자들인 베른 행정관들을 암시하고 있다.

Jean-Marc Berthoud, 11.

<sup>32</sup> Pierre Viret, *Le Monde à l'Empire et le Monde Démoniaque* (Geneva, 1561 & 1580).

<sup>33</sup> Pierre Viret, *Le Monde à l'Empire*, 421.

<sup>34</sup> Pierre Viret, *Le Monde à l'Empire*, 422.

비레에 따르면, 국가가 교회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행정관이 물리적 검, 즉 강압적 권력을 휘두른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만일 교회의 모든 권한이 행정관의 손에 달려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찢기도 다시 꿰매기도 할 수 있다. … 그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목사를 임명하고 해임할 것이다. 그들은 목회자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행정관들이 술에 취해 화가 나면, 변덕을 부려 목회자들을 해고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늑대들이 교회 안에서 양털로 외투를 장식할 것이고, 신실한 목사들은 쫓겨날 것이다. 왜냐하면 폭군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35</sup>

이것은 참된 복음의 개혁이라기보다 겉모양만 바꾼 가짜 개혁일 뿐이다. 비레는 참된 복음의 개혁과 불법적 가짜 개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sup>36</sup>

“복음의 개혁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의 개혁은 사람들이 복음의 방식에 따라 삶과 생활방식을 바꾸는 개혁을 뜻한다. … 그러나 가짜 또는 불법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다.”

“가짜 또는 불법적 개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묘한 고의적 개혁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 이전의 악한 습관, 생활방식을 복음의 방식에 따라 개혁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복음을 자신들의 표준에 맞추어 변형시키고 복음을 자기 욕망과 개인적 이익에 이용하려고 한다.”

비레는 목회자가 정치적 통치자의 영역과 권력을 넘보아서도 안 되지만, 행정관도 목사와 교회의 권위를 찬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도인은 시민 행정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복종의 한계가 있다고

<sup>35</sup> Pierre Viret, *Le Monde à l'Empire*, 432.

<sup>36</sup> Pierre Viret, *Le Monde à l'Empire*, 118.

말한다.

이런 식으로 감히 영적 권력을 찬탈하려는 행정관들은 ... 무제한적 허가증에 불과한 자유를 바라는 것이다. ... 그들은 가련한 목사와 설교자를 마치 그들의 시종처럼 발아래 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중에 놓고 부리고 있다. 만일 목사들이 따르지 않으면, ... 행정관들은 즉시 목사들이 교만하며 행정관의 지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자들이라고 외친다.<sup>37</sup>

비레는 하나님께서 육체와 물질을 주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두셨다면, 영혼을 돌보기 위해 교회의 권위를 세우셨다고 믿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두 기관으로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 원칙이 현실에 적용될 때에 각자의 사법권에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 누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지를 둘러싸고 갈등과 불화가 생겼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의 관심사, 즉 영적 문제를 다룰 때, 두 기관 중 어느 권위가 우위를 갖는가 하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었다.

비레는 국가가 교회 문제를 결정하는 최종 권위를 지닌다는 국가우월주의(Erastianism)나 국가교회(state church) 형태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현대적 의미의 자유교회(free church)를 꿈꾼 것은 더욱 아니다. 16세기를 살았던 비레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상적이며 원칙적인 교회-국가 관계를 바랐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긴장과 갈등으로 얼룩졌다.

#### IV. 결론

비레는 16세기 격변의 종교개혁 시기 충돌하는 여러 세력 사이에서 관용과 중재의 원칙을 고수한 평화주의자로 평가된다. 그는 위그노의 지도자인 가스파

---

37 Pierre Viret, *Le Monde à l'Empire*, 267-268.

르 드 콜리니 제독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태생적으로 언제나 평화를 사랑했고 모든 분열과 갈등에 항상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통해 얻은 경험은, 내가 더욱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도록 자극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sup>38</sup>

비레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빼앗는 일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애 후반기 프랑스에서 사역할 때의 일화는 비레가 얼마나 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는지 보여준다. 프랑스 종교전쟁의 와중에 리옹 남쪽에 있는 발랑스(Valence)에서 위그노 지휘관이 로마가톨릭 예수회 소속의 에드몽 오제(Edmond Auger)를 처형하려 하자, 비레는 죽음을 무릅쓰고 탄원하여 형장에 묶여 있던 오제를 풀어 구해주었다. 이것은 비레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위였지만, 다행히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비레와 오제는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sup>39</sup> 이 사건은 비레가 적대자까지 품는 넓은 품을 가진 영혼의 목자였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리옹에서도 로마가톨릭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성안에 식량이 부족해지자, 위그노 지도자 수비즈(Monsieur de Soubise) 공작이 어쩔 수 없이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이, 노인, 여성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다. 성 밖으로 나간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비레는 이 전쟁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였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양측이 극적인 협상을 통해 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sup>40</sup> 비레가 연약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38 Huguette Chausson, *Pierre Viret: Ce Viret que fit vivre* (Eglise Nationale Vaudoise, Lausanne, 1961), 63. Jean-Marc Berthoud, 11-12.

39 권현익, 『기욤 파렐과 종교개혁: 16세기 스위스 로망드 지역 종교개혁사』 (서울: 크리스천르네상스, 2021), 762.

40 권현익, 『기욤 파렐과 종교개혁』, 763-64.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준다. 왜 그가 ‘종교개혁의 천사’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일화이다.

그렇지만 비레는 동시에 교회의 영적 자율성을 쟁취하기 위해 베른의 행정관이나 로잔의 의회에 맞서 20년 이상 치열한 논쟁과 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는 국가의 권력에 불복하고 저항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필자에게는 비레의 저항권 사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구체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1536년 로잔 논쟁에서 보여준 그의 초기 입장은 다분히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할 의무에 강조점이 있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비레의 입장은 생애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베른의 통치자와 교회의 자율성을 놓고 논쟁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심지어 목회자 직무에서 강제로 해임당하고 추방을 당하면서,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더욱 심사숙고하게 되었고 그 필연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비레의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세 차례의 프랑스 종교전쟁에 연관되고 투옥까지 당하면서 그의 저항권 사상은 더 뚜렷해졌다.

부르스 고든은 칼빈에 관한 전기에서 제네바 종교개혁 삼총사 중 파렐과 비레는 적극적 저항을 지지했고 칼빈은 그들과 달리 소극적 저항을 주장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말년에 칼빈이 파렐과 비레와 사이가 소원해 진 이유가 바로 저항권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든은 파렐과 비레를 “유능한 혁명가”라고 지칭하면서 이 두 사람이 택한 길은 “예언자적 의를 동반한 폭력과 저항”의 길이었다고 주장한다.<sup>41</sup> 저항권 사상의 차이 때문에 칼빈과 비레의 우정에 금이 갔다든지, 그리고 비레가 폭력의 길을 걸어간 혁명가였다는 고든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비레가 저항권에 관한 한 칼빈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비레의 글을 살펴보면 배우게 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사상 중 저항권이 기존의 일반적 추론보다 훨씬 일찍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프랑스 종교전쟁이 발발한 1562년 이후, 특히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학살 사건이 벌어진 1572년 후에 프로테스탄트 저항권이

41 Bruce Gordon, *Calvin*, 『칼뱅』, 이재근 옮김 (서울: IVP, 2018), 578-79.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추론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레에게서는 훨씬 이른 시기인 1547년에 저항권 사상이 나타난다. 비레의 저항 사상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적극적 저항권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소극적 저항을 넘어서서 현대적 의미의 적극적 시민 불복종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테오도르 베즈는 1581년 펴낸 『인물전』에서 선배이자 동료였던 비레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비레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나는 그의 육체가 구타당하고, 고통과 고령, 중독, 상처, 인간의 치명적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고귀한 신비를 보고, 온전한 침묵 가운데 주의 울레에 복종합니다.

나는 끝이 없는 지혜로 가득한 고귀한 작품을 읽습니다. 가장 친애하는 비레, 그대가 끔찍한 감옥 안에서 쓴 작품들. 나는 당신 견해의 선함과 깨끗한 양심을 알고 있고, 당신 안에 참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절망 가운데 불길에 휩싸여 반쯤 죽어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무서운 열기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영혼 안에 불타는 마음, 밝은 마음의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이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징조와 기적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온화한 비레는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살아 있을 동안 그들에게 말했고, 죽어서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sup>42</sup>

42 Théodore de Bèze, *Les vrais portraits des hommes illustres* (translated from the Latin to French by Simon Goulart, Slatkine, Geneva, 1986 [1581]), 128.

## [참고문헌]

- Barilier, Roger. *Viret banni*. Cahiers de la Renaissance vaudoise, Lausanne, 1970.
- Barnaud, Jean. *Pierre Viret, Sa Vie et Son Oeuvre*. Wentworth Press, 2016[1973].
- Berthoud, Jean-Marc. "Pierre Viret and the Church's Refusal to Fold before the Power of the State." *Pierre Viret The Theologian*. trans. R.A. Sheats. Monticell, FL: Psalm78Ministries, 2019.
- Bèze, Théodore. *Les vrais portraits des hommes illustres*. translated from the Latin to French by Simon Goulart Slatkine. Geneva, 1986 [1581].
- Calvin, Jea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59)*.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The Westminster Press, 1960.
- Chausson, Huguette. *Pierre Viret: Ce Viret que fit virer*. Eglise Nationale Vaudoise, Lausanne, 1961.
- Cunitz, Edouard. et. al. *Calvini Opera*. XVII. Brunsvigae: C.A. Schwetschke, 1863.
- D'Aubigné, Merl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Europe*. Vol. II & III. Harrisonburg, VA: Sprinkle Publications, 2000.
- Good, James I. *History of the Swiss Reformed Church since the Reformation*. Sunday School Board, Philadelphia, 1913.
- Gordon, Bruce. *Calvin*. 『칼뱅』. 이재근 옮김. 서울: IVP, 2018.
- Knox, John. *Works of John Knox*. vol. 4. ed. David Laing.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14[1855].
- Les Actes de la Dispute de Lausanne 1536*. Secretariat de l'Universite: Neuchatel, 1928: 298-304.
- Linder, Robert D. "Forgotten Reformer." *Christian History* 71 (Aug. 2001), 35-37.
- \_\_\_\_\_. "Pierre Viret and the Sixteenth-Century French Protestant Revolutionary Tradition."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38/2 (June 1966), 125-137.

- McNeill, John T. "John Calvin on Civil Government." *Calvinism and the Political Order*. ed. George L. Hu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5.
- Sheats, R. A. *Pierre Viret: the Angel of the Reformation*. Zurich Publishing, Tallahassee, FL, 2012.
- Van den Berg, Machiel A. "Pierre Viret: The 'Best Friend of All'." *Friends of Calvin*. trans. Reinder Bruinsma.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 Viret, Pierre. *De vrai ministère de la vraie église de Jésus-Christ*. Geneva, 1560.
- \_\_\_\_\_. *Le Monde à l'Empire et le Monde Démoniacle*. Geneva, 1561 & 1580.
- \_\_\_\_\_. *Remonstrances aux Fidèles qui conversent entre les Papistes*. Geneva, 1547.
- \_\_\_\_\_. *The Christian and the Magistrate: Roles, Responsibilities, and Jurisdictions*. trans. and ed. R. A. Sheats. Monticello, FL: Psalm78Ministries, 2015.
- Vuilleumier, Henri. *Notre Pierre Viret*. Librairie Payot & Cie, Lausanne, 1911.
- 권현익. 『기욤 파렐과 종교개혁: 16세기 스위스 로망드 지역 종교개혁사』. 서울: 크리스천르네상스, 2021.
- 박경수. "칼뱅의 국가론."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http://pierreviret.org/article.php> (Pierre Viret Association Homepage).

[Abstract]

**Pierre Viret's Thought on the Right of Resistance :  
Focusing on His Life and Works**

Gyeong Su Park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This study is an inquiry into the thought on the right of resistance of Pierre Viret,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16th century Swiss Reformation but is unfamiliar to us. It is the researcher's duty to show the reality of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a complete and balanced way to bring the alienated figures to the forefront of history in the study of the Reformation.

Viret, along with Guillaume Farel and Jean Calvin, is a reformer in Lausanne, also called the "Triumviri of the Geneva Reformation." This study will first introduce his life in relatively detail what kind of person Viret is, and then highlight his political thoughts by focusing on the works and events in which Viret's idea of resistance is revealed.

Viret has been regarded as a moderate pacifist among the reformers in the 16th century, but from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as a reformer in Lausanne in 1536 to his forced exile in 1559, he was in constant conflict with the Bernese authorities who were ruling Lausanne at the time.

It seems to me that Viret's thought on the right of resistance gradually developed concretely over time. His initial position in the Lausanne Controversy of 1536 emphasized the duty of

submission to state power. However, as he experienced debates and conflicts with the Bernese ruler over the autonomy of the church, he became more conscious of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to undue political power. During the last decade of Viret's life, he was involved in three French religious wars and was even imprisoned, which made his idea of the right to resist more pronounced.

**Key Words:** Pierre Viret, Right of Resistance, Reformation, Church and State, Lausanne, Bern

